광주·전남 기업 "꽃피는 봄은 아직…"

1분기 건설업·생계형 창업 증가 불구

중소기업 가동률 60%대…여전히 부진

창업하는 업체 수가 늘어나고 중소기업 가동률이 상승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경제지표가 점차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다수의 창업이 정책관련 업종과 생계형 위주인데다, 공장 가동률도 정상가동률에는 미치지 못해 아직은 본격적인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광주·전남지역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새로 창업한 업체 수는 866개로 전 분기(706개)에 비해 160개(22.6%)나 급증했고, 전년 동기(788개)에 비해서는 78개(9.8%)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395개, 전남이 471개로 전 분기에 비해 각각 23개와 137개가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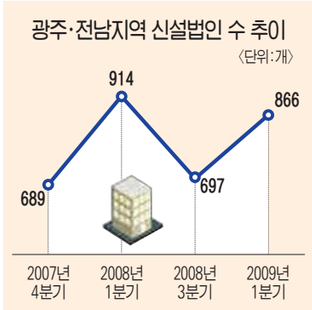
창업이 급증한 것은 나주 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 여수엑스포 개발 본격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건설업체 수가 전 분기에 비해 88개나 늘었기 때문이다. 또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및 미취업 인력이 생계형 창업에 나서면서 소액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도소매업과 건축·설계·컨설팅 등 사업서비스업이 전 분기 대비 40개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좌우하는 제조업은 대부분 업종에서 전분기 대비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3월중 광주·전남 중소기업 가동률도 신학기 관련 일부 업종 수요증가와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공공기관 발주물량 확대 등으로 소폭 상승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106개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을 조사한 결과 3월 가동률은 63.9%로 2월보다 0.7%포인트 올라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년 동월(73.8%)에 비해서는 9.9%포인트 하락해 여전히 조업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광주가 61.6%, 전남이 65.6%로 전월대비 각각 0.4%포인트와 0.8%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제조(70.3%),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68.6%), 운송장비제조(68.3%)만이 비교적 높은 가동률을 보였지만 대부분 업종이 65%이하의 낮은 가동률을 나타내는 등 모든 업종이 정상가동률(80%)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신설법인 수는 늘었지만 내실이 부족하고 공장 가동률도 아직은 정상수치에 미치지 못해 본격적인 회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재호·장필수기자 lion@

미리보는 가을·겨울 패션 29일 열린 '프레타 포르테(Pret-a-Porter) 부산 2009 가을·겨울 컬렉션'에서 모델들이 올 가을과 겨울에 유행할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컬렉션에는 파리, 도쿄, 베이징 등에서 활동중인 해외 5팀과 국내 6팀 등 11개팀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光銀, 태양광업체 LG CNS와 업무협약

광주은행은 29일 광주·전남지역 태양광 산업 발전을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업체인 ㈜LG CNS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내용은 LG CNS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최적의 사업자와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성 여부를 분석해 관련 내용을 광주은행에 제공하면 광주은행이 LG CNS가 선정한 업체에게 금융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다.

광주은행 측은 "태양광발전시설공사 부문에서 시공능력이 탁월한 LG CNS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광주은행은 우수한 사업자를 선점하고, LG CNS는 광주·전남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상호 윈-윈 전략을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서랍속 동전 지폐로 교환하세요

韓銀 내달 '동전교환' 운동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29일 은행연합회, 새마을금고연합회와 함께 5월 한 달 동안 '동전 교환 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한은 지역본부와 은행 및 새마을 금고 점포에 동전 교환 창구를 설치해 주민들이 갖고 있는 동전을 지폐로 교환해줄 예정이다.

동전 교환 창구에는 '자투리 동전 모금함'을 배치해 동전교환 때 남는 1천원 미만의 자투리 동전을 모아 어린이 재단에 전액 기부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운동을 통해 사무실이나 집에서 보관 중인 동전이 다시 유통되면 동전을 새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지금까지 공급한 동전은 500원짜리 17억 개, 100원짜리 73억 개 등 총 173억 개에 달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름값 내려가나

정유사별 판매 가격

내일부터 인터넷 공개

지식경제부는 지난 1월 개정 · 공포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5월부터 정유사별 판매가격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강제성이 없는 조사로 석유사업자의 가격을 수집해 전체 평균가격만을 공개해왔으나 법률 개정으로 석유사업자의 가격 보고가 의무화되고, 지경부는 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유사별로 판매하는 주간가격은 해당주의 가격을 다음주 목요일까지 보고하고 금요일에 공개하게 돼있다. 따라서 다음달 8일부터 오피넷(www.opinet.co.kr) 및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을 통해 정유사별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간 금지됐던 석유판매업자간 거래(일명 수평거래)도 다음달부터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수평거래가 허용되면 주유소는 정유사 또는 대리점뿐 아니라 값싼 주유소에서도 제품을 공급받게 돼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유사별 가격 담합이나 불법 유사석유 유통 확대 등 석유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됨에 따라 지경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민간전문가가 함께 유가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유사 공급가격을 6개월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교보AXA 자동차 보험료 인하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으로 큰 이익을 내면서 보험료 인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교보AXA가 최근 보험료를 내렸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자동차보험사인 교보AXA는 이달 초 자동차보험료를 0.7% 인하했다. 교보AXA는 "근래 사업비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간 데 따라 부가보험료를 내렸다"면서 "앞으로 손해율이 계속 안정된다면 위험보험료 인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AXA는 손해율이 2008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 77.9%로 전년의 83.5%에서 5.6%포인트 내려간 데 힘입어 지난해 87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다른 손보사들도 삼성화재가 지난해 6천억원 가까운 순이익을 내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호황을 누렸지만 아직까지 자동차 보험료 인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담배 소매인 지정권 정부, 지자체로 이관

오는 11월부터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담배 소매인 지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담배 소매인에 대한 지정 승인권 뿐 아니라 지정 기준까지 정하도록 하는 담배사업 시행규칙을 내달까지 개정해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담배사업 시행규칙은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담배 소매인, 소매점간 거리, 담배 판매에 부적당한 장소 등을 규정했다. /연합뉴스

유통업계는 지금 '童心 마케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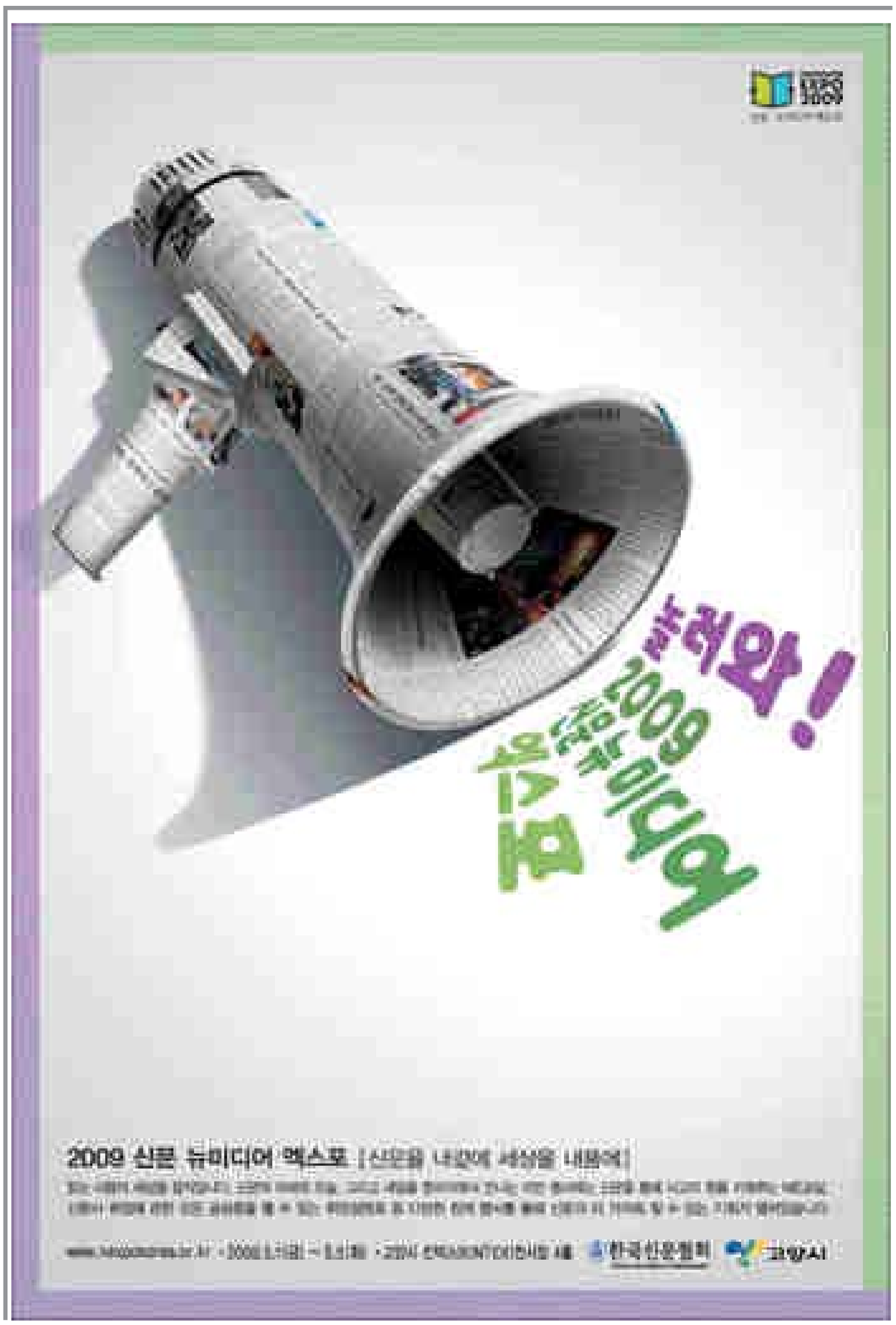
어린이날(5월 5일)을 앞두고 지역 유통업계가 동심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5월 1일부터 10일간 1층 정문 야외광장에서 '2009 신세계 뽀롱뽀롱 뽀로로 페어'를 연다. 뽀로로와 함께 볼풀존, 낚시존, 매직버블존, 포토존 등을 꾸며 아이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1층 광장에서 닌텐도 게임 체험도 함께 연다.

이밖에 5월 7일부터 13일까지 1층 광주신세계 갤러리에서 '인연'을 테마로 조세현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사랑의 사진전'을 개최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5월 5일 'Fun&Fun 행복 페스티벌'을 진행,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캐릭터, 동물 의상을 입은 도우미들이 백화점 매장에서 사탕, 초콜릿, 과자 등 기념품을 제공하며 각종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또 키다리 삐에로 아저씨가 만들어주는 요술 풍선, 페이스 페인팅 무료 시술 서비스 등이 함께 열린다.

신세계 이마트는 29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매장을 찾은 어린이 고객들에게 솜사탕을 무료로 증정하는 행사를 열었다.

홈플러스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감사선물 최대 70% 할인전'을 개최한다.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완구 등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